

미국 화학산업 근본적 통합 “시급”

석유화학 중간제품 및 Polymer 시장 구조조정 필요 ... 투자매력 상실

최근 Lyondell Chemical의 Millennium Chemicals 인수 및 Lubrizol의 Noveon 인수 계획이 발표되면서 미국 화학산업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다.

미국 화학산업의 구조조정은 과거 25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일어났으나 기업수를 줄이는 의미의 산업통합, 즉 대다수의 화학기업들이 바라고 필수적이라고 느끼는 대규모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유사제품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화학기업 수를 줄이는 관점에서의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은 아직 같은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화학기업 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적절하고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쟁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해 독점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의 여러 석유화학 중간제품 및 Polymer 시장에서는 경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많은 통합 및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 화학산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미국 화학기업의 시장가치(2001)

(단위: 10억달러)

순위	회사명	시장가치
1	General Electric	480
2	Wal-Mart	235
3	Cisco	230
4	Microsoft	225
5	Chemical Industry	215
6	Intel	205
7	HSBC	140
8	Procter & Gamble	100
9	Wells Fargo	98
10	Tyco International	96

자료) The Chemical Industry at the Millennium

한편, 미국 화학시장은 다시 투자분야로 떠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의 화학기업들이 아시아 및 중동과 같은 신흥 공업국가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세계적으로 자동차, 타이어, 세제, 전자 등 핵심산업이 급격히 통합됨으로써 수요기업들이 최강의 구매력을 확보해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심화돼 화학제품의 마진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저널 2004/08/09>